

Gary Yates 박사, 제12권, 세션 4, 제12권 개요, 2부

© 2024 게리 예이츠와 테드 힐데브란트

이것은 소선지서에 관한 강의 시리즈의 Dr. Gary Yates입니다. 이것은 강의 4, 12장 개요, 2부입니다. 나는

12장 전체 메시지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제공하고 이 책들이 어떻게 전개되는지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제공함으로써 마지막 토론을 계속하고 싶습니다. 서로 관련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과정이 끝나면, 이 12명의 다른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에서 설교한 후, 이 책들을 하나로 묶는 데 도움을 주는 영감받은 편집자나 선지자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선지자들의 메시지 자체가 반드시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그러한 상호 관계, 상호 관계, 상호 연결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책들이 기본적으로 연대순으로 배열되어 있지만 주제별 통일성이 있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개별 책을 연결하는 표어가 자주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과 7절에는 하나님의 긍휼과 심판에 대한 초점과 고백이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그런 종류의 일은 나훔서 이후에 중단됩니다.

이는 결국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내를 소진시킨다는 생각을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그의 동정심을 소진시켰고 그는 반드시 심판을 내려야 했습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또한 마지막 수업의 끝에서 첫 번째 책인 호세아서가 이 전집 전체에 걸쳐 그 자체로 작용한다고 생각하는 문제를 제기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리고 회개를 촉구하는 선지자의 요구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을 더 참조하고 싶다면 좋은 책이자 좋은 출처인 Jason LeCureux의 책 The

Thematic Unity of the Book of the Twelve를 참조하세요. 그는 슈브(shub) 라는 단어 와 그것이 선지자들의 메시지에서 어떻게 강조되는지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나 선지자들이 앗수르의 위기, 바벨론의 위기, 심지어 포로기 이후에도 회개하도록 사람들을 부르고 있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회개의 예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12서의 첫 번째 책인 호세아서에는 6장, 12장, 14장에서 회개하라는 권고가 나옵니다. 그러나 선지자가 마음 속에 음행의 영이 있다고 말하는 딜레마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그들은 다른 것, 그들의 우상, 신, 개인적인 방종, 쾌락, 다른 나라에 대한 신뢰, 그들의 군사력에 대한 신뢰 등 무엇이든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이 하나님께 완전히 돌아오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들은 회개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됩니까? 선지자 예레미야서에는 회개하라는 끊임없는 외침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결국, 회개하겠다는 제안은 종료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이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데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들을 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당신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1절, 그들의 죄는 금강석 끝 펜으로 그들의 마음에 새겨져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악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알 수 있나요? 내 사람들을 좀 보세요. 그들의 마음은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새 언약을 세우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과거의 죄를 씻어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자기 백성의 마음에 법을 기록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가 새겨져 있고 그들의 성품에 새겨져 있는 그 마음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하려는 열망을 새기실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겔, 우리는 그것을 일치시킵니다. 우리는 그것을 예레미야서 31장과 나란히 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주심으로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한 선지자들의 희망은 구약에서 그분이 그의 백성을 위해 행하신 일들보다 훨씬 더 큰 영이 부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또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행동하셔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할 것입니다.

그분은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치십니다. 선지자들은 그들의 메시지를 전하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그들의 배교를 치유하시는 분이어야만 할 것입니다.

슈브(shub) 라는 개념, 즉 돌이켜야 할 필요성, 회개해야 할 필요성이 언급됩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심판이 이르리라. 호세아서 14장의 마지막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리고 그의 메시지의 일부뿐만 아니라 다른 11권의 책에서도 우리가 읽게 될 내용을 실제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너라. 네가 네 죄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졌음이니라. 당신의 말을 받아들이고 주님께 돌아오십시오.

그에게 말하여 선한 것 외에 모든 죄악을 제거하라 하라 우리는 우리 입술의 서원인 황소로 갚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거짓 신들과 다른 나라들에 대한 신뢰를 포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좋아요, 그들이 어떻게 회개의 자리에 올 수 있을까요? 그런데 4절이 이에 대한 답을 줍니다. 그리고 주님은 내가 그들의 배도를 고쳐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좋아, 내가 그들의 등을 돌리는 것을 치료해 주겠다. 그리고 그 결과로 그들은 슈브를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돌아올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그들의 슈빙을 잘못된 방향으로 치료할 것입니다. 그리고 올바른 방법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할게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내 노가 그들에게서 떠났으니 내가 그들을 기꺼이 사랑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궁극적으로 그의 백성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그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들의 마음속에 무언가를 행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선지자들을 설교할 때 그들을 가르칠 때, 그리고 설교할 때 사람들의 죄를 징계하기 위해 이 책들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우상을 정죄하기 위해 이 책들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그 대신에 뭔가를 주세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그 대신에 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배도를 고치신다. 그것이 궁극적으로 그들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소선지서의 첫 번째 책인 호세아의 마지막 부분에는 치유에 대한 부르심, 하나님의 약속 또는 돌아오라는 부르심,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그들을 치유하실 것이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이것은 소선지서 전반에 걸쳐 계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12장에서 흔히 반복되는 장르 중 하나는 회개의 부르심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 책으로 갑니다. 저는 그것이 호세아서에서 우리가 가졌던 것과 매우 잘 들어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엘서 2장 12절부터 14절에는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본문 전체를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몇 번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옷만 찢지 마세요.

이것을 현실로 만들어 보세요. 마음을 찢으십시오. 하나님께로 향하십시오. 그분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며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좋아요. 이때 그들이 회개했다는 구체적인 진술은 없습니다. 그런데 요엘서 2장 1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위하여 질투하시며 자기 백성을 긍휼히 여기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너희에게 보내노니 너희가 배부르게 되고 다시는 너희를 욕되게 하지 아니하리라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은 이 심판의 메시지를 구원의 약속으로 바꾸십니다. 무슨 일이에요? 요엘이 백성들에게 성회를 열고, 제사장들을 모으고, 회개하라고 외쳤던 것 같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실제로 회개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그들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18절과 19절에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있습니다.

20절에 하나님은 내가 북방 사람을 너희에게서 멀리 옮기고 그를 메마르고 황폐한 땅으로 몰아내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 심판에서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왜?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 반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문제를 제기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요엘서에도 이어진다.

소선지서의 시작 부분에서는 요엘 자신이 포로기 이후에 사역을 했지만, 이 책의 끝 부분에서는 이 책을 맨 앞에 배치하여, 보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회개를 명하신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이 응답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메뚜기가 멸한 햇수를 내가 너희에게 갚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요엘과 호세아가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한다는 점에서 열두 사도서의 소개에 매우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엘은 그럴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셔야 합니다.

그러나 요엘의 반대편에는 사람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긍정적인 기회가 있습니다. 문제는 십이사도서의 나머지 부분 전체에 걸쳐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이 많이 있지만 사소하거나 실제로는 일시적이거나 부분적인 회개 행위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가 이 모든 것에서 회개하고 재발하는 패턴을 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회개와 재발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어느 정도 추적했습니다. 그래서 요엘서에는 회개의 예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당신은 이 모든 것의 연대기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아모스를 볼 때, 미가를 볼 때, 스바냐를 볼 때, 하박국과 그 다음에 나올 책들을 볼 때 재발이 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모스의 설교를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남쪽 왕국은 앞으로 다가올 경고를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발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다시 죄에 빠졌습니다.

그것이 심판을 가져온다. 북왕국의 경우는 기원전 722년 앗수르의 심판이었습니다. 남왕국의 경우는 586년 바벨론의 심판이었습니다.

요엘, 회개, 이어지는 책들에는 재발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모스서로 갑니다. 그리고 아모스 역시 회개하라는 여러 차례의 외침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나는 그것이 12장 메시지의 중심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경에서 그것들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아모스는 아모스 5장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성소에 와서 많은 제사를 드리며 제사를 지내거나 기도만 하지 말라. 진실로 하나님을 찾으시오.

6절: 여호와를 구하고 살리라 두렵건대 그가 불 같이 요셉의 집에 일어나사 삼키고 끝 자가 없느니라 베델을 위해. 그래서 선지자들에게는 회개하라는 요청이 있을 때 돌이켜 하나님을 찾고 의를 추구하라는 요청이 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그들이 순종하지 않으면 부정적인 결과를, 순종하면 긍정적인 결과를 우리에게 줄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14절에서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면 불 같이 터지리라”고 말했습니다.

너희는 살기 위하여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라. 이 사람들 앞에서도 같은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모세가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제시한 삶과 죽음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대로 너희와 함께 하사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게 하시리라 성문에서 정의를 세우소서. 혹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셉의 남은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실까 하노라.

아모스는 요엘이 했던 것과 똑같은 일을 했습니다. 아마도,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자비를 베푸실 가능성은 항상 있습니다. 조엘 시대에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아모스 시대에는 그것이 그들이 외면하는 기회였습니다. 5장에서 아모스는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당신의 노래의 소음을 나에게서 없애십시오.

당신의 하프 선율에 나는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당신의 공허한 예배에 지쳤습니다. 나는 당신의 의식에 지쳤습니다.

나는 당신의 노래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24절: 공의가 물처럼 흐르고 공의가 넘쳐흐르는 강물처럼 흐르게 하소서.

좋아요? 그러므로 회개하라는 요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문합니다. 사람들은 아모스의 설교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들은 요엘 시대처럼 반응했습니까? 모델은 하나님께로 향하는 회개이며, 하나님은 심판 대신에 축복을 보내십니다. 대답은 그들이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모스가 유다에서 올라와 북쪽에서 설교할 때, 결국 아모스에게 찾아오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아모스 7장에서 그의 이름은 아마샤입니다. 그리고 그가 말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모스 7장 12절. 선견자여, 물러가라.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라. 집으로 돌아가세요. 우리는 당신에게 지쳤습니다. 거기에서 빵을 먹어요. 거기에서

예언하라. 그러나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마십시오.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전임이니라.

좋아, 당신은 우리의 시민 종교를 망쳐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은 벤엘이라는 말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이곳은 왕의 성소만이 아닙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다. 그러나 이것을 거부한다는 것은 여기에 재발이 있음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북쪽 왕국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가 올 것입니다. 그리고 미가는 유다의 지도자들을 불러 모을 것입니다. 이제 남쪽 왕국에 심판이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6장 8절에 나옵니다. 기억해두세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노인이여, 그는 선한 것이 무엇인지 네게 말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네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행하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한 성약의 책임을 이행하십시오. 너는 심판을 면할 것이다. 자, 다시,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들은 미가 선지자의 설교를 들었습니까? 대답은 적어도 여기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2장 6절. 전파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그런 것을 설교해서는 안 됩니다. 치욕이 우리에게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야곱의 집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해야 합니까? 주님께서 참을성이 없으신가요? 이것이 그의 행위입니까? 미가야, 너는 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치욕이 우리에게 닥칠 것이라고 설교해서는 안 됩니다. 히스기야가 미가의 전도로 인해 회개했다는 것을 예레미야서에서 알 수 있지만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은 일시적으로 연기되었습니다. 미가서에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받는 반응은 그들이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가 생겼어요, 조엘. 북부 왕국과 남부 왕국에 재발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박국서, 스바냐서, 그리고 이 책들을 살펴보면서 선지자 스바냐가 무엇을 말할지 들어보십시오.

2장 1절. 오 부끄러운 나라여 모이라 모이라 이 명령이 시행되기 전에, 그날이 거 같이 지나가기 전에, 여호와와 맹렬한 진노가 너희에게 임하기 전에 여호와와 진노. 좋아요? 하나님의 진노가 곧 당신을 향해 터질 것입니다. 당신이 듣는다면 그것을 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3절. 여호와와 의로운 계명을 행하는 이 땅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여호와를 찾으라. 의와 겸손을 구하십시오. 어쩌면 너희가 여호와와 진노의 날에 숨겨질 수도 있다.

아마도 그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같은 것입니다. 조엘은 옷만 찢지 말고 마음도 찢으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주님께서서는 심판 대신에 심판을 보내시거나 심판 대신에 축복을 보내실 것입니다. 아모스야, 만일 우리가 선을 구하고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에서 면하게 하실 가능성이 있느니라. 그러나 우리가 스바냐에 이를 때쯤에는 의와 겸손을 구하라고 그는 말합니다.

어쩌면 너희가 여호와와 진노의 날에 숨겨질 수도 있다. 이제는 판결을 회피할 기회가 사실상 없어 보인다. 겸손하고 반응이 빠른 사람만이 숨겨질 수 있습니다.

분노의 날이 올 것입니다. 이제 거의 선을 넘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것을 선지자가 스바냐에게 말했을 장소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지 마십시오. 심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듣는 사람들은 보호를 받을 것이며 여호와와 진노에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회개하는 자는 남은 자뿐이니라. 그들은 이것으로부터 구원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회개와 재발의 패턴입니다. 요엘, 회개가 있습니다. 하지만 포로 이전 선지자들 전체를 보면 이스라엘과 유다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관참은.

회개와 재발의 패턴이 나타나는 두 번째 장소를 언급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앗수르인과 니느웨 성을 다루시는 사건으로 끝납니다. 요나 3장에서 요나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어로는 다섯 단어입니다. 좋아요. 그래서 나는 그가 그 메시지를 조금 다섯 단어로 확장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회개의 제안은 없습니다. 요나는 어쩌면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너희가 구원을 받을지도 모른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그런 기회조차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들에게 절대적인 심판의 메시지가 있더라도 사람들이 올바른 방식으로 반응한다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는 것을 후회하실 가능성이 있다는 현실은 항상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여기에 있기를 원하지도 않는 이 선지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그곳으로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물고기 뱃속에 넣어두셔야만 했습니다. 그는 거기에 있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그는 다섯 단어로 된 메시지를 설교합니다. 알았어, 맵소사, 난 내 일을 다 했어. 나는 이 사람들에게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응답하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점은 만일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반응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백 년 동안 그들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3일간의 여행길에 선지자를 보내셨고 그들은 다섯 말씀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였습니다.

그 결과 요나서 3장에는 그들이 자신들의 악을 회개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서 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행한 일과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뜻을 돌이켜 그들에게 내리겠다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악을 뉘우쳤습니다.

히브리어 ra'ah 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은 재난을 후회하셨습니다.

이는 동일한 히브리어 단어인 라아(ra'ah) 입니다. 재난의. 그래서 회개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요나는 8세기에 설교했고, 나훔도 7세기에 등장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거 알아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면하신 사람들은 다시 죄악된 길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나훔은 이렇게 말합니다.

1장 11절에서 나훔은 니느웨 사람이 여호와를 거슬러 악을 꾀한 무익한 모략꾼이 네게서 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8세기 요나 시대에 그들은 자신들의 악을 회개했습니다. 지금은 150년이 지난 7세기입니다. 그들은 다시 악으로 돌아갔습니다.

나훔서 3장 마지막 절에는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내리실 심판이 나와 있습니다. 네 상처는 누그러질 수 없고 네 상처는 심하다. 당신에 관한 소식을 듣는 사람들은 모두 당신에게 손뼉을 칩니다.

너희의 끊임없는 악이 누구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좋아요? 그래서 나훔 선지자가 마지막으로 전하려는 말은 너희는 악을 끊임없이 행하는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결과로 하나님은 니느웨와 앗수르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12장에는 회개와 재발의 패턴이 다시 나타납니다. 예레미야 18장에서 우리가 본 살아있는 예가 있습니다. 만일 어떤 백성이, 하나님께서 재앙을 선포하시고, 그 백성이 그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면, 그들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것이고, 하나님은 뜻을 돌이켜 축복을 보내실 것입니다.

우리는 요엘과 요나에게서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거나 약속을 받아들여 그것을 변명으로 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행동을 한다면 하나님은 뜻을 돌이켜 선을 보내지 아니하시고 화를 내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 회개와 재발은 소선지서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좋아요? 이것이 바로 이 책들의 내용입니다. 좋아요, 12장에는 회개와 재발에 대한 세 번째 예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를 포로기 이후 시대로 데려갑니다.

스가랴와 학개는 백성들에게 회개를 외칠 것입니다. 좋아요? 1장 3절에서 스가랴가 말하는 것을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나에게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약속이 있어요, 슈브. 백성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면 하나님도 너희에게로 돌아오실 것이다.

이것 사이에는 상호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과 상호작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진정한 주고받는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올바른 방식으로 응답한다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특정한 방식으로 응답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는 심판을 그치고 복을 내리실 것입니다. 4절. 너희는 옛 선지자들이 외쳤던 너희 조상들과 같이 되지 말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라 우리는 소선지서의 다른 책들을 보면 그것을 압니다. 그러나 그들은 내 말을 듣지도 않았고 주의를 기울이지도 않았다. 여호와의 말이다.

너희 아버지들은 어디 계시느냐? 그러면 선지자들은 영원히 살까요? 그러나 내가 내 종들에게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규례가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바라보다. 예를보세요. 그리고 우리는 스가랴서에 도달할 때까지 소선지서부터 끝까지 되돌아가서 일할 수 있습니다.

역사를 보세요. 앗수르 시대에는 그들이 온전히 돌아오지 못하여 심판이 임하였느니라. 바벨론 시대에는 온전히 회개하지 아니하여 심판이 임하였느니라.

그러니 너희 아버지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살펴보라. 그리고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회개하여 말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의 길과 행위를 따라 우리를 대하기로 뜻하신 대로 우리를 대접하셨도다.” 좋아요.

우리는 그것을 인정합니다. 우리는 인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다루셨습니다.

그들은 이 시점에서 회개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됩니다. 학개와 스가랴 시대에 이러한 회개가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은 그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행하기로 결심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처음 땅에 왔을 때부터 그것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그렇게 할 의욕을 잃었습니다. 그들은 성전을 재건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회개했습니다.

요엘서나 요나서처럼 포로기 이후의 이스라엘에서도 우리는 회개의 모범을 보입니다. 그들은 정말로 회개했습니다. 그러나 스가랴서의 나머지 부분에는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과 회복을 통해 그들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완전히 경험하기를 원했다면 필요한 모든 방법으로 완전히 회개하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3장 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명령을 지키면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며 내 뜰을 지킬 것이요 내가 네게 출입할 권세를 주리라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 목사님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나를 완전히 대표하려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6. 먼 곳에서 오는 자들이 와서 우리를 도와 여호와와의 전 건축을 도우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듣고 그 음성을 순종하면 이같이 되리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학개와 스가랴 시대에도 회개가 있었으나 불완전한 회개였습니다(8장 16절, 17절).

너희가 행할 일은 이것이니라 서로 진실을 말하십시오. 네 성문에서 참되고 화평을 이루는 판결을 내리라.

너희는 마음으로 서로 해하려고 악한 꾀를 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이 모든 일을 미워하노라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예, 당신이 응답한 것은 훌륭합니다. 당신은 성전을 지음으로써 순종하라는 선지자의 부르심을 들었지만 건축 구조만으로는 당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단지 성전이 있고, 예배할 수 있는 장소가 있고,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장소가 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궁극적으로 당신은 삶을 살아야 하며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명령하신 정의를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당신은 또한 당신의 이웃을 당신 자신처럼 사랑해야 할 것이며, 그것은 당신이 모세 언약에 순종하는 방식으로 반영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회개의 예가 있지만 제한된 형태입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소선지서의 다른 책들에서 재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로 갈 수 있는데, 그 책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의 논쟁과 분쟁으로 변합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어디에 있습니까? 글썄요, 그들은 하나님과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공평하지 않다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과연 유익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대하셨기 때문입니다. 말라기 서두에서 말라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그에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습니까?

그래서 스가랴서에는 하나님의 집을 짓기 위해 필요한 일을 기꺼이 행하려는 회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라기서에는 “당신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이까?”라고 말하는 회개하지 않고 타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좋아요? 3장. 그리고 다시, 우리는 소선지서의 마지막 책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봅니다. 3장 13절에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너희 말이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당신은 우리가 어떻게 당신을 대적했다고 말합니까?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분쟁의 일부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당신이 나를 대적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당신에 대해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님께서서는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고 말씀하셨다. 우리가 그의 직분을 지키거나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것에 관심을 두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교만한 자를 복되다고 부릅니다. 행악자는 형통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여 피함을 얻느니라. 하나님은 상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정의를 행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자에게도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곳이 바로 사람들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소선지서에는 자신들의 길을 바꾸라는 요청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마지막 예가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3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니라.”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것이 사람들이 반응하도록 이끄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경외하고 존경하며 심지어 하나님이 내리실 심판을 두려워하기까지 합니다. 그러자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서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주의를 기울이시고 그들의 말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이름을 존중하는 사람들을 기념하는 책에 그분 앞에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의 말에 반응한 무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제기한 이러한 비난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에 관심을 두지 않으신다거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거나, 악을 행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신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그것에 전념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선지자가 그들의 이름을 책에 기록했다고 알려줍니다.

제한된 응답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진정한 반응이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소유를 이루는 날에는 그들이 내 것이 되리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끼듯 내가 그들을 아끼리라. 그러면 너희는 다시 한 번 의인과 악인의 차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의 차이를 보게 될 것이다.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관찰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의인을 번영케 하신다고 생각한다. 글썄요, 하나님께서는 이 이름들의 목록을 보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름을 취하셨습니다. 그는 그것을 적어 놓았습니다. 주님을 경외하고 존경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서는 그들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서는 그들을 심판으로부터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의 요점은 우리가 소선지서의 마지막 부분에 이르렀고 여기서 여전히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제한된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제한된 회개.

그리고 진실로 회개한 자, 진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자만이 결국 심판을 면하게 되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의 끝에 도달했습니다.

포로기 이후의 때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때로서 심판이 끝나는 때였습니다.

내 말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사야 40장에 자기 죄로 인해 배나 받았느니라. 선지자 이사야는 그들이 수고한 수고의 때가 끝났다고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소선지서에서는 그 땅으로 돌아가는 것조차도 주님께로 완전히 돌이지 않았기 때문에 최종적인 회복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심판과 구원의 패턴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사역에서도 반복될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도 이런 일이 반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러한 패턴은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배교를 치유하시는 역사를 행하실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그것이 호세아 14장에 있는 해결책임을 기억하십시오. 소선지서들이 우리가 이 상황을 알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분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지 않았는지 역사를 통해 알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를 뒤집기 위해 행동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의 일을 행하셨다. 그분은 그들을 속박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구약성서의 전형적인 구속의 예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더 큰 구원의 역사를 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 오는 구원,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실 구원,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위한 희생 제물로 자신을 주시는 것이 궁극적으로 그분의 백성을 그들에게 다시 끌어들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패턴이 계속될 것입니다. 이 패턴은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그의 백성을 치유하실 때까지 반복될 것입니다. 요엘은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선지자 스가라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회개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궁극적으로 그들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야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예수님의 죽음이 회개의 선물을 가져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3장에서는 베드로가 여전히 사람들 앞에 서서 회개하라고 말해야 상쾌해지는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궁극적으로 그 상호작용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 어떻게 계속될 것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세계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까지 계속될 예정입니다. 선지자들에게서는 하나님께서 강제적인 회개의 역사를 행하실 것처럼 자주 들립니다.

나는 그들에게 새 마음을 주겠다. 나는 그들의 마음에 법을 기록할 것이다. 에스겔은 내가 그들에게 새 마음을 주고 내 영을 부어 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러한 구원의 일을 행하시더라도 궁극적으로 사람들은 이에 반응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선지자들에 나오는 이러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승리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자신을 위해 한 백성을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새 언약 백성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는 이 모든 것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상기시켜 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도달하는 방법, 이 모든 일의 시기,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과정은 궁극적으로 사람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그래서 소선지서에 나오는 이 드라마는 계속되는 역사를 통해, 심지어 신약 시대까지 계속해서 전개될 것입니다. 나는 또한 다른 것을 강조하고 주목하고 싶습니다. 소선지자들은 이것과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그의 백성을 어떻게 치유하실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결혼과 같은 관계로 상상할 수 있습니다.

십이사도서의 시작 부분에서 우리는 파탄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과 주님 사이의 단절된 관계를 반영하는 선지자 호세아와 그의 아내 고멜의 관계를 봅니다. 고멜이 호세아에게 불충실한 것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그들의 남편인 야훼에게 불충실했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진 결혼 생활, 깨어진 사랑 관계, 깨어진 언약에 대한 이러한 생각은 십이사도서의 최우선 메시지의 일부입니다. 호세아 1~3장의 맨 처음 부분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호세아서에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곳이 여러 군데 있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그러나 그 책이 이스라엘의 사랑의 대상에 대해 말할 때마다 그것은 항상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그들은 그들의 연인을 사랑합니다. 그들이 믿는 다른 신들은 하나님이 할 수 있다고 믿지 않는 방식으로 그들을 성취하고,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고, 그들의 영혼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사랑의 대상은 언제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단어, 사랑한다는 단어는 십이사도서에 28번이나 사용되었습니다. 12장에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즉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의 사랑이 언급되는 유일한 곳은 호세아와 말라기입니다. 그리고 말라기서의 시작 부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여전히 분열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깨진 결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우리가 앗시리아 위기를 겪었고, 바벨론 위기도 겪었고, 포로기 이후의 한가운데에 와 있고, 돌아와도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땅에서. 당신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요? 그래서 소선지서의 끝 부분에는 처음에 있었던 것과 동일한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의 백성의 마음을 변화시키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회개를 이루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이 그분께로 돌아오도록 도와주셔야 합니다.

말라기의 마지막 구절과 말라기의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그분의 사랑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3장 6절에 “나 여호와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멸망치 아니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조상 시절부터 너희는 내 율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나에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증거를 원하시나요? 나는 당신을 어떻게 사랑했나요? 내가 너희에게 내린 모든 심판 가운데서 너희를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않았다는 사실을 보라. 나는 아직도 당신에게 나에게 돌아올 기회를 주고 있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내가 나의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겠다고 말씀하셨다. 나는 종말론적인 사자를 보내겠다. 그리고 그 선지자의 목표, 장차 올 엘리야의 목표는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더 이상 분열된 백성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악한 사람들과 의로운 사람들로 구성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그분께 순종하고 따르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조상들과 세대들의 마음이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소선지서들의 이야기이다.

슈브 할 기회,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예는 제한적이었지만 대부분 그들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이 일을 이루기 위해 그의 사자를 보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로 돌아간다는 전체적인 개념, 소선지서의 주제적 일치를 여러분이 좀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통일된 주제와 모티프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선지자들은 전체적으로 여호와의 날에 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야훼의 날, 우리는 왜 그날을 날이라고 부르며, 왜 그것을 언급하는가? 이때가 바로 고대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날을 말할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여 구원하시거나 심판하시는 때라고 믿었던 때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백성을 구하기 위해 극적인 방법으로 개입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적들을 심판하기 위해 극적인 방식으로 개입하실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들이 이 날을 여호와의 날이라고 불렀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무나 강력하셔서 마치 하루 만에 그의 원수들을 물리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종종 왕들이 고대 근동의 전투에 나가서 자신의 업적을 이야기할 때, 비록 군사 작전을 완수하는 데 몇 달이 걸렸을지라도 그들은 내가 단 하루 만에 적을 물리쳤다고 말했습니다. 메사가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거두자, 그것이 꽤 치열한 전투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도, 내가 새벽부터 정오까지 대적과 싸워 이스라엘을 쳐서 진멸시켰다고 말합니다.

선지자들은 우리가 여호와의 날이 실제로는 오랜 기간임을 알지만 하나님은 하루, 한 순간에 그의 원수들을 물리칠 수 있는 용사라고 말할 것입니다. 소선지서의 통일된 주제 중 하나는 주님의 날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는 사상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는 곳 중 하나는 요엘서입니다.

그래서 요엘서는 연대순으로 선지자 시대의 마지막에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책에 도달하면 주제별로 다음을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이 책은 맨 앞에 배치되었습니다. 우리는 주의 날에 대한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엘은 1장 5절에서 “술을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며 통곡하라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라”고 했습니다. 한 민족이 내 땅을 치러 왔는데, 그 강하고 셀 수 없는 민족이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내리시는 이 심판은 여호와의 날이니라. 1장 15절, 그 날을 구하라.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임이니라.

2장 1절,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하라. 온 땅이 진동할지어다 여호와와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가깝습니다.

그리고 날이라는 단어가 반복됩니다. 2절: 그 날은 캄캄하고 캄캄한 날이요 구름과 캄캄한 날이리니 이런 때는 일찍이 없었느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으며 그 날이 매우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주님의 날이라는 개념은 12장에서 반복되는 주제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그것에 대해 생각합니다. 우리는 재림과 관련된 사건들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야곱이 환난을 당할 때입니다. 이것이 큰 환난이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의 영원한 왕국을 준비하기 위해 존재하는 죄 때문에 이 땅을 심판하실 때입니다.

그러나 선지자들에서는 여호와와 날을 하나님께서 온 땅을 심판하시는 가까운 일과 멀고 먼 장래의 일로 가리킬 것입니다. 요엘서 2장에서 주님의 날이 가까웠다고 말하는 것은 휴거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읽은 것은 마지막 때에 야곱이 환난을 당할 때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하려는 적군의 다가오는 침공입니다. 그날은 주님의 날입니다.

준비해. 그리고 우리가 첫 번째 비디오 중 하나에서 선지자들이 하는 대부분의 예측에 대해 이야기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중 약 1%만이 여전히 미래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선지자들이 주의 날에 관해 말할 때 그들은 주로 앞으로 일어날 일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엘은 포로기 이후에 백성들이 끔찍한 메뚜기의 침입을 겪었습니다. 그들의 농작물은 전멸되었습니다. 조엘은 다음과 같은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메뚜기 떼처럼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공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회개하고 길을 바꾸지 않는다면 그날은 주님의 날이 될 것입니다. 아모스 5장. 선지자 아모스는 앗수르의 위기 기간 동안 사역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아모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날을 사모하는 너희에게 화가 있을진저. 왜 주의 날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빛이 아니라 어둠이다. 아모스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너희는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주님의 날이 오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주님의 날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원수를 심판하시는 날임을 믿습니다. 당신이 이해하지 못한 것은 주님의 날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심판하실 날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심판하시는 때라는 점은 옳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대적임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옳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의 날을 고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앗수르 사람들을 제거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바벨론 사람들을 제거하실 것이며, 그날은 빛과 구원의 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성탄절을 고대했던 것처럼 그들도 주님의 날을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모스는 '보라, 주의 날은 빛의 날이 되지 아니하리라'고 말합니다. 그날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적입니다.

당신들은 그의 파괴를 경험하게 될 사람들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말하며, 이스라엘에 대하여 여호와의 날은 사자를 피하는 사람과 같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자에게서 멀어져 깊은 숨을 들이쉬는 다음 꿈과 마주칩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그들은 꿈에게서 탈출했고, 그들이 지금까지 했던 모든 달리기 후에 거칠고 무거운 숨을 쉬고 있습니다. 그들은 집에 들어와 벽에 손을 대고 있다가 뱀에게 물렸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도 피할 수도 없습니다.

20절: 주의 날은 어두움이 아니냐 빛이 없겠느냐 캄캄하고 빛남 없는 날이 아니냐 좋아요? 그래서 선지자들은 그들에게 다가올 날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는 환난 기간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아시리아의 침략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또 다른 예는, 스바냐 선지자를 보면, 스바냐는 십이서에 나오는 또 다른 선지자입니다. 이 책의 주요 주제는 주님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수천년이 걸릴 일도 아닙니다. 주님의 날이 다가오고 있으며, 그 날이 바로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스바냐 1장 7절: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잠잠하라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느니라 주님께서서는 제물을 준비하시고 당신의 손님들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의 아들들과 외국 옷을 입은 자들을 다 벌하리라. 여호와의 이 날은 가까운 장래에 유다 백성에게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10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날에 예루살렘 각처에서 부르짖음과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리라.

12절: 그 때에 내가 등불로 예루살렘에 두루 찾아 무릇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들을 벌하리니 따라서 이것은 다시 말하지만 길고 미래적이고 먼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곧 일어날 일입니다.

이제, 주님의 예언적 날의 다른 측면은 요엘 3장이나 스바냐 3장과 같은 구절을 보면, 다가오는 주님의 날이 미래의 주님의 날에 대한 패턴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날에 하나님은 모든 나라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 날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시 정결케 하실 것이다.

그러나 주님의 날에 대한 예언적 사상은 가깝기도 하고 멀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한 12권의 통일된 모티브 중 하나입니다. 이번 강의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은 개별 책, 큰 그림, 큰 이야기를 통해 작업하면서 우리가 하는 몇 가지 방식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겪을 때 그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삶과 죽음의 문제이며, 사람들은 그 말씀에 대한 반응에 따라 심판을 받을 수도 있고 축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스라엘의 배도를 고치시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의 뜻을 행하는 데 헌신하는 백성을 창조하실 것이라는 희망이 있습니다. 이것이 곧 다가올 끔찍한 심판에 대한 메시지에서 나오는 예언적 메시지의 희망입니다.

앗수르 위기, 바벨론 위기, 심지어 포로기 이후에도 여호와와의 날입니다. 이스라엘의 미래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배도와 배교를 고쳐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소선지서에 관한 강의 시리즈의 Dr. Gary Yates입니다.

이것은 소선지서에 관한 강의 시리즈의 Dr. Gary Yates입니다. 이것은 강의 4, 12권의 개요, 2부입니다.